



謹賀新年



백암면 청계목장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의 불씨를 살립시다

존경하는 83만 용인시민 여러분!

전 국민을 함께 했던 무자연을 뒤로한 채 어느덧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온 시민이 노력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의 불씨를 살려 시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풍성해지는 한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에도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속에 우리 용인시의회는 83만 용인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장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뜻을 전해 드립니다.

지난해는 흔들리는 경제여파에 국내외적으로 하루라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실물경제 위기, 고용쇼크, 갈피 못 잡는 세계정책, 지옥과 천당을 오가는 유가, 아파트 값 폭락 등 불안정한 경제여건과 불황의 터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한해를 마무리 해야만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절망 속에서 한 가닥 남은 희망의 끈조차 놓으려 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우리 용인시의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용인시가 120만의 대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 한해였다고 자부합니다. 안정된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바탕으로 시장에 대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선 일침을 가하고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지난 7월 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중등교과서 해설서 독도 영유권 명기 문제와 관련 일본정부가

독도의 영유권을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영토침탈 행위로 보고 전국 최초 "독도수호 결의안"을 채택하여 범국민확산운동의 기폭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용탄 신도시 입지로 인해 영동고속도로 기종IC가 폐쇄 위기에 처해있자 2007년 3월부터 "폐쇄반대결의안"을 채택 1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끊임없이 도로공사와 전교부를 접촉해 지난해 9월 기종IC개통이라는 성과를 얻어내기도 하는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항을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한 한해였다고 자부합니다.

기축년 한해에도 저를 비롯한 20명의 시의원 모두는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 순응하고 83만 용인시민을 위한 진정한 참봉자로서 거듭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시장의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지역주민들의 청취를 올바르게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83만 용인시민 여러분!

최근 찾아오는 곳마다 어려운 경제에 대해 시민의 불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물경기는 10년전 IMF 구제금융시기때 보다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렇다고 주변여건에만 관승하여 한탄만 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신다면 꼭 봄날이 올 것이라 확신하며 저희 20명의 시의원들은 시민여러분이 베풀어주시는 애정과 성원을 소중히 여겨 시민여러분의 기대에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소명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시민여러분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용인시의회 의장 심노진



안타깝고 아쉬웠던 일들은 잊어버립시다

대망의 기축년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국내외에서 정치·경제·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다사다난했던 한해로 기억됩니다. 북경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하여 한국수영사상 최초로 400m 자유형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박태환, 세계신기록을 달성하여 세계최강임을 과시한 장미란 선수 등 비롯한 자랑스런 우리 태권전사들은 우리들에게 감동과 자부심을 만끽하게 했습니다. 반면 금강산 관광과 총력파살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미국 최대 투자·금융회사의 파산과 대각 등의 여파로 국내기업도 막대한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고용과 외환을 통하여 경기침체가 가속되었던 한해였습니다. 부디 지난 한해 안타깝고 아쉬웠던 일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새해에 대한 알찬 계획으로 우리 모두가 한걸음 더속 더 발전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 간절합니다. 감동과 시민이 교차했던 2008년 불황의 터널을 뚫고 희망찬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용인시의회 의원 모두는 분골쇄신하여 동·서간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용인시의회가 보다 성숙된 83만 시민의 대변자인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운영에 대해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당부 드리고, 우리 시의회는 지방자치를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과 내실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본연의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깊이 인식하면서 의정활동에 임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용인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기축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용인시의회 부의장 김희배



불합리한 법규의 개정과 제도개선에 주력

존경하는 83만 용인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무자연을(子年) 한해가 지나고 희망에 찬 기축년(己丑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금년 한 해도 시민 여러분 가정마다 항상 기쁨이 가득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용인시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 출발을 하였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유래 없었던 세계경제의 침체의 영향과 내수부진 등으로 우리경제도 참으로 어려웠던 역동적인 한 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우리 시의회도 지난해 7월 2일 제5대 후반기 용인시 의회가 출범하여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였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난속에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법규의 개정과 제도개선에 주력하였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 정책대안 제시 등 시민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의정활동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앞으로도 용인시의회가 보다 성숙된 83만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운영에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용인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기축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용인시의회 운영위원장 박원동



일하는 의회상 정립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존경하는 83만 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용인시민 여러분께 신년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용인시 의회를 위하여 애정과 성원에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언제나 잘못을 깨달은 뒤에야 고칠 수 있게 된다는 말처럼 해마다 신년계획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다음해의 계획을 더욱 알차고 실천가능 하도록 세울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사다난했던 무자년(子年) 한해를 돌이켜 보면 국·내외적으로 격변하는 주위환경 속에서 유가폭등, 환율급락, 실업률 증가, 국내 경기 침체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시민들의 불리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매우 죄송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의원들은 본연의 임무인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불리증진 그리고 용인시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의회상 정립과 생산적인 의회의 실현을 위하여 올 한해도 열심히 땀 흘리며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기축년, 바로 '소의 해'입니다. 그래서인지 진정으로 주안을 위해 묵묵히 일하면서도 무엇 하나 빠지지 않고, 결국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떠나는 소의 특성과 지방의원의 모습이 너무나 흡사하게 닮아 있는 것 같아 올해가 더욱 큰 의미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민은 시민 나뭇대로 지방의원은 지방의원 나뭇대로 최선을 다하고 본분을 지킨다면 잘못된 풀나뭇처럼 뿌리까지 흔들리고 함께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김정식



시민이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83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불황의 여파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위축된 경기가 쉽게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의 상반기 조기 집행이나 공공사업과 금융권의 인원 감축 등은 현재 우리 경제의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음은 물론, 우리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들도 건전한 소비행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보다 알찬 계획으로 2009년 새해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제5대 용인시의회가 출범한지 어느덧 중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배우고 익히고, 봉사하는 동안 여러 박을 시민 여러분들이 물고 주고 나쁜 박은 쏘아 주면서 진정한 민의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남은 잔여 임기동안 시민들의 삶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보살피 주시고 가꾸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이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이 확고히 자리잡아갈 때, 지방자치의 진정한 모습 또한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을 겁니다.

올해는 시민체육공원,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 모현면 전원형 복합주거단지 착공 등 많은 대단위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나 작년부터 진행되어온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해 많은 세수가 감소되리라 전망됩니다.

'모마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모든 사업들을 졸속이나 일회성으로 급하게 처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췌금 금년 한 해도 시민 여러분이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깃들시길 기원하며 계속해서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용인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우현

2008년 용인시의회 폐회연

시민을 위한 참봉사자로 한층 거듭날 것을 다짐

용인시의회(의장 심노진)는 제1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08년 의사일정을 마치고 2008년 폐회연을 개최했다. 이날 용인시의회 의원들은 무자연을 마무리하며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중반을 넘어선 잔여임기를 앞두고 최선을 다해 시민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을 위한 참봉사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2008년 폐회연은 을 한해동안 시의회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한 열심히 뛰어온 제5대 용인시의회에 대한 「의정활동 성과보고」를 시작으로 막을 열었으며, 서정석 용인시장 외 국회의원, 도의원, 의정동우회 회원 등 각 기관단체장이 참석하여 축하의 자리를 함께 했다.

폐회사에서 심노진 용인시의회 의장은 "제5대 용인시의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던 저변에는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들을 비롯한 83만 용인시민의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말하며 "지방자치 의식과 의원 본연의 소명의식이 뒷받침되어 한층 성숙해진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시민의 눈과 발이 되는 충직한 봉사자로서 직분을 묵묵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새해에는 세계경기 불황으로 어려웠던 서민들의 생활이 보다 풍요롭고 행복이 가득해지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새로이 구성된 하반기 의장단을 필두로 20명의 시의원들이 남은 임기동안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지역주민들의 참뜻을 올바르게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시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조원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2008년 한 해 동안 용인시의회는 8회의 임시회와 2회의



정례회의 등 총 80일 간 의회를 개원했으며, 예산안 9건, 조례·규칙안 77건, 동의 및 건의안 13건 비롯해 113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제134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수련관 목적의사용등 협약위반 문제외 등 총 48개 분야 152건을 지적, 집행부에 권고 및 시정조치토록 통보했다.

『제5대 용인시의회는 시민 모두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8년도 용인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들의 마음을 정책에 반영하고, 시민들의 눈과 귀가 돼 집행부의 각종 정책을 견제·감시하며,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성감을 다하는 의회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의정운영을 해왔다.

의회의 이러한 활동은 궁극적으로 지역의 발전과 83만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시정운영의 든든한 다짐들이 됐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대단위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수 시민이 공감하고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집행부와 협의 조정하면서 시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 시민과 의회의 친숙도를 높이고 있다. 2008년 우리 시의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한 의회의 활동을 결산한다.

2008 회의운영 현황

시의회는 2008년 2월 11일 제126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135회 정례회에 이르기까지 한 해 동안 총 10회에 걸쳐 8회 임시회와 2회 정례회를 진행했으며, 안건처리에는 예산안 9건, 조례·규칙안 77건, 동의 및 건의안 13건을 처리하였다.

또한 2008년도 의원발의 건수는 총 28건으로 그 주요안건은 「용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제·개정률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2008년도 제5대 용인시의회는 시민들이 부여한 소중한 권리와 의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시민본위의 열린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용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134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불합리한 행정 총 152건을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결과를 향후 조례입법 및 예산심사 등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는 등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행정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국회 및 국립대학 교수를 초빙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사전에 직접 현장 방문을 실시함으로써 단순히 자리

에 앉아서 사전 답사함으로써 현지 주민들의 민원사항 등 바로 뛰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우리시의 시급한 당면현안에 대한 지적과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선별하고 지역주민과 현장확인을 중점으로 개선 가능한 대안을 시 집행부에 제시함으로써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시정질문

총 2회에 걸쳐 24명의 의원들은 서정석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우리시의 시장방향 및 현안사항 등 건의시정질문을 실시, 시정전반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해결방안이나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시의 건전한 발전과 함께 시민의 불편해소와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했다.

건의 및 결의문

지난 7월 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중등교과서 해설서에 독도영유권 명기 문제와 관련 일본정부의 영토침탈행위규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한일본대사관과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대외 의정활동

각종 재난 이재민과 저소득층 구호를 위한 적십자 회비를 전달, 기쁨유출사고와 관련하여 태안군 의회를 방문 위로금을 전달, 저소득가정, 독거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연탄 나누어주기 행사에 성금 전달과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였다.

2008년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정설계와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보다 내실있게 준비하고, 의원상호간 친목과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총 4회에 걸쳐 세미나 및 교육을 실시한 있다.

기흥IC 존치와 관련 10만인 서명운동 전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 등 총력을 기울인 결과 기흥IC를 존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화성 동탄 신도시의 소각장을 우리시 연접지역에 건설하려던 것을 의회위원의 강력하고 발빠른 대처로 이전 조치토록 결정하였다.

2008년도 (8-12월) 회기 운영 및 안건 민원처리 현황

| 총 44일 [정례회 1회, 임시회 3회]
| 조례·규칙·규정안 : 34건 / 동의·승인안 : 4건 / 기타안건 : 3건

제132회 임시회

2008.9.18~9.22(5일간)

제132회 임시회가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마쳤다. 운영위원회에는 지방의원 발의한 ▲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원동 의원이 발의한 ▲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이 상정되었고, 자치행정위원회에는 ▲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의 등 위원회 조례안 ▲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이우현 의원이 발의한 ▲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운철 의원이 발의한 ▲ 용인시 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 용인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용인시 우리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용인시 낚시등의 금지 구역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재의요구안 등 6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안건처리 현황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마연 의원 발의)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선임방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예산 결산 심사에 내실을 도모하고 시민의 대표자로서 의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박원동 의원 발의) (원안가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의 등 위원회 조례안 (부결)
「지방재정법」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설치근거에 따라 운영하던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와 「용인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총괄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기능이 유사한 2개의 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두 위원회의 기능상 통합운영할 사항이 아니므로 부결.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용인시 법무 행정처리 조례」의 근거조문을 상위법령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우현 의원 발의)(부결)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교육연구시설의 입지 확대 허용으로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부족한 교육연구시설 확충에 기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중 시의원의 구성을 확대하여 각 구별 지역 현안사항 등을 충분히 도시계획에 반영하였으나 난개발 등의 우려로 인하여 심도있는 검토 필요로 부결.

용인시 수도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운철 의원 발의)(원안가결)
「수도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 보완하고 조례의 제명 및 위원회의 명칭변경, 그리고 위원회 구성의 취지와 기능을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

용인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교통안전법 제13조에 의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의무설치를 규정함에 따라 근거 조문과 위원회 기능 내용을 변경하고자 개정.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08. 6. 12부터 전국 공공기관에서 동시 시행하는 「승용차 요일제」내용을 반영하고, 2007년 12월 10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제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관련 공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장용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에 포함하고자 개정.

용인시 우리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우리랜드」라는 명칭은 농업·농촌 테마 체험장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다소 부족함이 있어 본 사업목적에 잘 나타낼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사업효과를 높이고,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투표참여 자 우대제도와 관련하여 공립 유료시설이용에 따른 조례를 개정.

용인시 낚시등의 금지 구역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재의요구안 (부결)
「용인시 낚시 등의 금지 구역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과태료는 경기도에서 시달된 조례 표준안(제2조 제3항 관련 별표에서 위반 종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개정된 하천법(2008.04.03.)시행령 제107조 제3항(300만원) 및 제4항의 1/2경감 기준(15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 규정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으로 부결.

제133회 임시회

2008.10.24~11.3(11일간)

제133회 임시회가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0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마쳤다. 운영위원회에는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 협의의 건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상정되었고, 자치행정위원회에는 박남숙 · 이종재의원이 발의한 ▲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 용인시 상생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용인시 공직자 등의 부패행위신고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의 안건이,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10월 27일, 28일 이틀간에 걸쳐 국회 의정연

수원 교수 및 국립대학교수를 초빙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의회의 역할 강화와 감사를 위한 교육」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안건처리 현황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남숙 · 이종재 의원 발의) (원안가결)
용인시 지역의 출산을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를 극복하고 임신부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

용인시 상생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우리시의 도시브랜드인 ACE Yong-in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용인시의 정체성과 비전 제시 등 의미성·주목성·차별성을 극대화 하고 현대적 감각과 미래지향적 이미지로 업그레이드 하여 우리시의 대내·외 인지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정하려했으나 입법예고 미실시에 따른 절차상 하자로 인해 부결.

용인시 공직자 등의 부패행위신고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부결)
최근 사회적 분위기가 공무원으로 하여금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성실성을 요구함에 따라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부패행위 근절과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했으나 입법예고 미실시에 따른 절차상 하자로 인해 부결.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주민편향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면부담하게 주안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공유재산의 취득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1) 청소년 수련원 2) 단계 시설확장사업(안) 3)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안) 4) 체육시설 설치 국유지 매입(안) 5) 남사체육공원 조성사업(안) 6) 용인스포츠센터 건립(안) 7) 용인농촌테마파크 주차시설 확충사업(안) 8) 농경문화 전시관 신축(안) (원안가결) 9) 용인자연휴양림 사업계획 변경(안) 10) 용인조경경기장 건립(안) 11) 수지레스파라 다목적용 건립(안) (부결)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주 의원 발의) (부결)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또는 완화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나 난개발 등의 우려로 인하여 심도있는 검토 필요로 부결.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의 일환으로 공직선거법 제33조(선거권행사의 보장)에 따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공영주차장이용요금의 할인부분을 신설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을 종류 및 설치기준을 세분화하기 위하여 개정.

제134회 2차 정례회

2008.11.25~12.19(25일간)

제134회 제2차 정례회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마쳤다. 자치행정위원회에는 박남숙 의원이 발의한 ▲ 용인시 여성화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승만 의원이 발의한 ▲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현수 의원이 발의한 ▲ 용인시 새마을운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08년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용인시 시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 ▲ 용인시 청소년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는 ▲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09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안건처리 현황

용인시 여성화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남숙 의원 발의) (원안가결)
실내수영장 이용시 가임기의 여성은 매일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이용이 불가함. 현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조례로 수영장 이용료 100%의 6~8지 30%를 감면해 주고 있는 실정이며, 2008. 3. 3부터 용인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 13세 이상 55세 이하에 대하여 조례로 10% 감면해 주고 있으나, 용인시 여성화관 수영장 이용 시에는 이를 감안하지 않고 동일하게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어 행정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영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승만 의원 발의) (부결)
100만 인구에 육박하고 있는 우리시는 인접 대도시와 비교해 문화가반이 턱 없이 부족하고 또한 지역문화발전에 대한 투자도 미비하여 인접 도시간 문화수준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행 청소년들만 구성되어 운영중인 시립예술단 체제로는 고급화 다양화 되는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의 한계와 선진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전문 교향악단 구성,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교향악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어려운 경제 환경 등을 고려 심도있는 검토 필요로 부결.

용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현수 의원 발의) (원안가결)
「새마을운동진흥법」에 기초로 용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새마을 정신을 계승하고 나아가 시장 및 국가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법규 입법취지가 상호 연계되고 기능이 유사한 기구와 정원관련 조례를 통합하고, 전부개정조례로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효율성을 높이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과 관련하여 감축인력 조정 및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

용인시 사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인가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과 관련하여 감축인력 조정 및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조정되는 담당기구에 대한 사무조정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

2009년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공유재산의 취득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함으로 1) 용인조정·카누 경기장 건립(안) 2) 용인테니스장 건립(안) 3) 용인자연휴양림 사업계획 변경(안) 4)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건립계획 변경(안) (원인가결) 1) 수자레스파아 다목적용 건립(안) (부결)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인가결)

행정안전부 시세 감면 조례 표준안의 시달에 따라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

용인시 청소년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인가결)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법률779호 2006.12.29. 일부개정)에 따라 청소년상담기관의 업무에 긴급구조·자활·치료 등의 위기청소년 지원업무 수행기능 등이 신설됨에 따라 용인시 청소년상담센터의 명칭을 청소년 "자원" 센터로 변경하고 위기청소년 지원업무 기능을 추가,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인가결)

수도법개정과 관련한 조문을 법에 맞추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행정안전부 "표준급수조례" 시행령고에 따라 조문 및 조항을 현상에 맞게 보완 수정하기 위해 개정.

2009 하수관거정비 BT.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 (안) (원인가결)

우리는 2006. 7. 31일 기흥·구갈레스파아를 준공하여 운영중이나 현재 기흥·구갈레사구역내 관거시설이 미비하여 하수의 차집 및 처리효율 저하가 우려되는 등 수질개선 효과에 차질이 예상되어 체계적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시급한 실정임으로 환경부의 "하수관거정비 종합투자계획"에 따라 단기간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설치와 운영을 함께 책임지는 공사관리방식(BT.방식)을 도입하여 부실시공 방지 및 책임운영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동의.

- 2009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 (수정가결)
- 2009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가결)
- 200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가결)
-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원인가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단위: 억원,%)

구분	2009년 수정예산(안)(A)	2008년 당초예산(안)(B)	증감액(A-B)	증감률(A-B)
합계	15,241	16,153	△812	△5.0%
일반회계	11,984	11,806	278	2.4%
기타특별회계	867	1,828	△961	△52.6%
공소계	2,390	2,519	△129	△5.1%
기수도사업	764	806	△42	△5.2%
업하수도사업	1,626	1,713	△87	△5.1%

제135회 임시회

2008.12.22~12.24(3일간)

제135회 임시회가 지난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마쳤다. 자치행정위원회에는 ▲ 용인시 공무원 예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용인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는 박재신 의원이 발의한 ▲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욱 의원이 발의한 ▲ 용인시 도로정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철·신현수 의원이 발의한 ▲ 용인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용인시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 ▲ 용인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008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00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안전처리 현황**용인시 공무원 예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인가결)**

2008. 4. 11.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예비조례(표준안) 개정안이 동보령에 따라 이에 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인가결)

2008년 3월 6.25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원하고자 용인시 6.25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국가유공자가 제외됨으로써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조례를 개정하여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 모두에게 명예수당을 지원해줌으로써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에 관한 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개정.

용인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인가결)

2008.02.15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 조문을 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은 물론 평생학습도시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실무령」의 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신 의원 발의) (원인가결)

주차가 공복길에 만연한 불법주차와 주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고 보다 좋은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문과 담장을 허물고 집안에 주차공간과 환경친화적인 조경공간을 설치하는 자에게 주차장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용인시 도로정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욱 의원 발의) (원인가결)

「도로법 시행령」제26조의2 정용료 산정기준(별표2)이 개정됨에 따라 정용료 산정기준을 현상에 맞게 조정하고, 그 밖에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위해 개정.

용인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철·신현수 의원 발의) (원인가결)

건설경기 침체와 건설산업 수주 양극화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역건설 경기하락으로 건설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용인시 지역건설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인가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구성 중 시의원의 구성을 확대하여 각 구별 지역현안사항 등을 충분히 도시계획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

용인시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 (원인가결)

야생동·식물의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동시에 사람과 야생동·식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상금액을 일관성있게 조정하기 위하여 수정.

용인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원인가결)

다양해진 환경오염행위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기준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

■ 2009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 (원인가결)**■ 2009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원인가결)****■ 200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원인가결)****[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단위: 억원,%)

구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 예산(안)(B)	증감액(A-B)	증감률(A-B)
합계	16,666	18,092	△1,426	△8%
일반회계	11,834	13,126	△1,292	△9.8%
기타특별회계	1,919	2,056	△137	△6.7%
공소계	2,913	2,910	3	0.1%
기수도사업	889	889	0	0.0%
업하수도사업	2,024	2,021	3	0.1%

자치행정위원회 (총 10명)



김정식 자치행정위원장



신승만의원



이종재의원



이상철의원



김희배의원



김민기의원



이윤규의원



지미연의원



박남숙의원



박원동의원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2008. 11. 27 ~ 12. 3 (7일간)]

용인시의회(의장 심노진)는 행정견제라는 지방의회의 본래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시 집행부의 사무전반에 관한【행정사무감사】를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처리업무가 전문화·세분화되어 양적·질적으로 행정수요가 증가하여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순기능 역할에 충실하여야 할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7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방대한 업무를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연찬회를 통한 전문감사 초빙과 상임위원회별 세심한 자료요구 등으로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 시책을 제시하고, 예산 집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감사에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미래 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공개적이고 투명성 있는 행정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심노진 의장은 “시민이 선출하여 주신 83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이 부여해주신 권한에 따라 명확하고 투명한 행정이 실행 될 수 있도록 밤낮없이 수고해 주신 모든 의원들께 감사드리고 절고 폐기 넘치는 의장단과 의원 모두는 시민

들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선봉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집행부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다졌다.

◆ 감사목적

-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고,
-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및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수집하고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및 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 ⇒ 민의수렴에 보다 충실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내지 제41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

[자치행정위원회소관 감사결과]

-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3개구청, 읍·면·동, 용인지방공사,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민장학회, 공보관실, 대외협력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3개구 보건소,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용인시시설관리공단 등에 대하여 사전에 요구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지난 1년간 집행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 전년도 감사·조사 지적사항 조치여부 ▲ 열린 행정 및 주민분위 행정시행 여부 ▲ 선심성·특혜성 행정 집행여부 ▲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 기타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여부를 중점사항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 자치행정위원회

지적사항은 시정40건, 권고 35건 등 총 75건으로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 주요 지적사항

- 시책별 홍보대상 세분화 및 분야별 홍보방법 개선
- 해외여행 귀국보고서 정책책자 발간 등 정책접촉 방안
- 통합관리기금 운영 개선
- 지역의 기업·산업 지원 방안 필요
- 3.1운동 만세 기념탑 진·출입로 및 주차장 시설확충 및 개선필요
- 무분별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계획의 사전타당성 검토
- 장애인 자활 및 재활 시스템 확충방안
-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감독 강화
- 청소년수련관 및 노인회관 셔틀버스 주차문제 해결 대책
- 위·수탁시설 운영차량 안전성(보험 및 차량) 확보대책
- 청소년 수련관 목적의사용등 협약위반 문제
- 각종 문화행사 및 공연기획의 제도적 개선방안

- 각종 행사의 공무원 동원금지 및 선심성 행사 자제방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종합 대책과 무분별한 사업추진 지양
- 영어마을의 무리한 사업추진 문제
- 장애인 진료편의 지정병원 확대 방안
- 장기적인 도서관리 대책방안 모색
- 독감예방 접종시 민원불편 해소대책
- 각 구청 과오납·미환부 해소대책 및 체납세 징수대책
- 조경공사 포함 각종 공사의 실명제 시행방안
- 각종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월별 집행방안
- 지방공사 설립목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대책
-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관리운영 직영방안
- 축구센터 우수선수 육성 및 예산의 임의집행 금지 해결방안
- 시민장학회 기금모금 대책 등

산업건설위원회의 현장사무감사



▲ 경전철 사업장



▲ 동백-마성간 도로개설 공사장



▲ 수지환경센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용인시의 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정책국,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건설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3개 구청에 대하여 사전에 요구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지난 1년간 집행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 2008년도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위법·부당한 사항들을 적발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시정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77건으로 그 중 시정 34건, 권고 43건이며 주요지적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주요 지적사항

-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보조금 간이영수증 등 정산절저(환수조치)하도록 시정요구
-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검토 및 덕성산업단지 조기 착공, 대기업 및 IT산업체 유치 방안 강구토록 권고
- 용인 불꽃 축제 행사추진후 여론조사를 통한 발전 방안을 모색토록 권고
- 공동주택 사업관리 시 부실공사 방지 및 하자시공 관리 방안을 모색하도록 시정요구
- 임대주택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 불편해소 방안 강구토록 시정요구
- 공원관리와 관련 공원 시설물 전수 점검을 통해 노후된 시설물 개선 및 필요시설을 설치토록 시정요구



▲ 산업건설위원회

- 교통시설물 관리시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교통시설물 일제정비 및 표준디자인 설정 추진토록 시정요구
- 도로시설물 관리시 각종 도로시설물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일제정비토록 시정요구
- 경안천 사람축제와 관련 교육적이고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행사를 위한 대책 강구토록 시정요구



김웅철의원



김재식의의원



박재신의의원



오준석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총 9명)



이우현산업건설위원장



김경태의원



조성묵의원



이동주의원



신현수의의원

시정질문·답변

〈제134회 제2차 정례회시 시정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발췌했다〉

질문의원 : 박남숙 의원

질문요지

용인시는 축구 선수육성을 위한 전국 최고시설의 축구센터가 있는 반면 성인리그는 K-3리그 밖에 없어 축구 도시로서의 위상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향후 인구100만의 대도시로 발돋움 각국 전국대회유치 등으로 축구도시로서의 이미지·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실업축구인 K-2 내셔널리그 팀을 창단함으로써 향후 K리그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용인시의 축구에 대한 중·장기 비전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내용

K3리그는 2007년 시범리그에 이어 2008년 정식리그로 출범, 15개 팀이 참가하고 있으며 용인시 시민축구단은 2007년 4월 8일 조효상 구단주와 감독, 코치 등 40여명으로 구성되어 K3리그에 참가하고 있다. 그해 전·후기리그 통합 3위를 차지하고 2008년엔 전·후기 통합우승을 하는 등 향후 용인시축구의 K2-내셔널리그의 참가의지에 밝은 희망을 주고 있다.

앞으로 용인시 성인축구팀의 K2리그 팀창단을 위해서는 현재 K3리그 시민축구단을 모태로 용인시를 연고로 하는 기업과 83만 용인시민이 구단운영의 주체가 되어 시민주공모 및 각계각층의 지원을 모으고 K2-내셔널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민축구단을 벤치마킹, 창단에 따른 자원확보, 운영방안, 관련자료 등을 심층분석·검토한 후 시민축구단 K2-내셔널리그 창단을 적극 검토하겠다. 축구센터에서 배출되는 우수한 선수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질문의원 : 조성욱 의원

질문요지

용인시는 향후 인구120만의 광역시를 염두에 둔 시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이제 그에 따른 세부적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시기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용인시의 동서간 지역균형발전이라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내용

우리는 한강수계에 자리 잡은 지리적 여건으로 도시기본계획상 16.6km²의 시가화 예정용지가 반영되어 있음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등 각종 공법상 규제로 인해 동서지역간 불균형 발전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금년 4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과 합리적인 토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 세분화가 완료단계에 있어 1,600만㎡의 개발용량을 확보하는 등 동부권을 계획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구간을 마련하였다.

서북부지역의 12개 시가화 예정용지는 당초 2016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2단계로 단계별 개발계획이 승인된 지역이나 202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4단계로 조정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 당초 2016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었으나 4단계로 조정되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민원은 물론 행정의 신뢰도가 크게 저하되고, 개발가능지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주변 환경과 부조화를 이루며 슬럼화가 가중될 것

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6년 기본계획과 부합되도록 단계별 개발계획을 조정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지의 규모가 소규모이며,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2016 용인도시기본계획 승인시 교통 및 기반시설 관련 평가와 감정을 받은 사항으로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시 충분한 공원과 녹지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최대한 보전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질문의원 : 이동주 의원

질문요지

각종 자연재난발생시 공무원들의 비상근무 및 용인시의 대처능력과 장비지급 등에 문제가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비상근무 시스템구축 계획이 있는지?

답변내용

비상근무현황 및 개선안에 대하여는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근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근무체계를 구축, 평상시에는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자연재난 우려시에는 기상업무 규정에 의거 비상근무를 발령하여, 2007년 11월부터 1년간 대설 및 호우특보에 대하여 총 13회, 7,339명이 비상근무를 하였으며, 주의보 시에는 부시장이하 전직원의 1/4이, 경보시에는 시장이하 전직원이 1/2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근무실태로는 비상근무시 재난관련부서는 시 재난관리상황실에서 상황근무를 하고 그 외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대기하며,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전 비상근무자는 현장에 투입 복귀 활동 등 상황에 대응한다. 이러한 재난대비에 기여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중앙 및 도 평가에 의해 우수공무원 선발시 우선 추천하고, 선진지 견학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힘쓰고 있다.

향후, 재난비상근무에 보다 성실히 임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승진가점제도를 활용해서 비상근무에 대한 책임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정보 인사발령시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겠다. 그리고 효율적 비상근무시스템 구축계획에 대해서는 호우 및 대설시 재난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앞으로 비상근무시 전 실과소별 재난대비에 따른 담당역할을 부여하고, 담당 읍·면·동에 출장, 재난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찰활동 및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 장비지급에 대하여는 내년 초에도 수방자재 및 제설장비 소요량을 조기에 파악, 확보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 산불진화에도 진화에 필요한 각종장비 및 근무복장에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질문의원 : 박재신 의원

질문요지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에 대한 준공허가로 시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및 기존 입주자들의 민원해결 방안은?

답변내용

우리시에서는 하자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공동주택 준공 1~2개월 전 입주예정자가 단지내부의 부실여부를 세밀히 점검하여 지적사항에 대해 준공 전에 조치완료하고 있으며, 또한 2006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실시공방지 및 하자예방을 위해 공무원, 건축사협회, 입주예정자 동호회 등 5~6명의 점검위원을 구성하여, 단지 공동부분에 대해 중점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2006년 9월부터 경기도에서는 민간전문가 5~6명으로 구성된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품질검수단의 점검실시 후 지적내용을 반영하여 준공처리를 하고 있다. 또한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2009년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하자점검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공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아파트의 하자이행 보증보험

기간 만료 전 예고 통보를 하여 만기 전에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하자 및 부실시공으로 인해 고통 받는 입주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공시 좀 더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점검을 실시하여 용인시민의 주거안정과 아파트 품질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질문의원 : 신승만 의원

질문요지

질 높고 안전한 보육환경과 보육서비스를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방안은 무엇인지? 보육시설 연장 등 장애아동을 포함한 취약보육 문제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공동주택 보육시설 공간 확대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내용

우리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4개소에 불과했던 국공립 보육시설을 27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이며, 2009년도에 동백과 유림어린이집 등 4개소를, 2010년에는 서천과 흥덕어린이집, 수지구청과 죽전복지센터 내 시립어린이집 등 7개소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 또한 보육시설 시간연장 및 장애아 통합 등 취약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39개소인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2009년에는 50개소까지 확충할 예정이다.

수지구청 내 정원 30명 규모의 장애아 전담시설을 신축하고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을 15개소까지 확대 운영하여 누구나 균등한 보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공동주택 단지 내 보육시설 공간 확대방안에 대하여는 현행 주택관련법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기존규모 이상의 공간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향후 제도개선 건의와 주택건설 사업승인 시에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질문의원 : 김경태 의원

질문요지

세계적인 경제침체 시기에 예산은 용 방안은 무엇인지? 디자인팀 신설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로환경에 문제점이 보여지는데 도시 디자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답변내용

먼저, 중폭, 낭비요소를 없애고 세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지방세, 세외수입을 적극적으로 부과징수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여 예산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 아울러, 2009년도 예산편성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해소 사업을 우선하고, 문화·체육 활성화, 사회서비스 확충사업, 하천환경 개선사업, 농촌지원 및 교육경비지원에도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의 경우 단계적인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사업별·시기별로 예산을 적절히 안분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우리는 도시발전을 위한 개발촉진만 중요시하였으나 오늘날 도시의 경쟁력은 예술적인 가치를 지닌 도시를 건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도시미관 개선, 광고물 정비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공공디자인 전문가로 구성된 브랜드 기획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디자인, 도시 경관업무 전담부서 신설을 검토하고 있고, 향후 도시개발, 가로정비사업 시행시 디자인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미관이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한편 2007년 11월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경관법이 시행되었고, 현재 경기도에서 경관수립 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어, 이와 연계한 우리시 고유의 디자인을 발굴하고 아파트를 비롯한 가로시설물, 공공시설물 설치 시 반영 하는 등 아름다운 용인시 도시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질문의원 : 강웅철 의원

질문요지

용인시 관내 자전거 전용도로 11개 노선은 하천에 설치된 것으로 도로상 전용도로는 전무한 실정으로 자전거도로 마스터플랜 및 이용시설 활성화방안은?



답변내용

우리시의 큰 문제점은 기존 자전거도로의 관리미흡과 체계적인 자전거 도로망 정비계획의 부재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2월부터 10월까지 용인시 전역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완료하여 생활권 중심노선과 지역연계 노선으로 구분하여 용인시 전역에 대한 체계적인 자전거 도로망 계획과 동 자전거 도로망 계획을 근간으로 하는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단기계획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관리미흡과 지장물, 안전표지 불량 등으로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기존 자전거도로에 대한 재정비 및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기계획으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기존 시가지 구역을 대상으로 생활중심권 노선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장기계획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인접 시·군과의 연계를 전제로 국도·지방도 등의 주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자전거도로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차원에서 자전거 전담부서 설치방안 및 자전거이용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자전거시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간을 마련하여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질문의원 : 김정식 의원

질문요지

지난 용인시 서부권 등의 무분별한 택지개발로 난개발 도시라는 오명을 씻고 용인시의 체계적이고 균형발전을 위한 용인지방공사 활용방법은 있는가?



답변내용

용인지방공사는 용인시의 급속한 도시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라 지역 균형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택지개발 수익의 역외 유출방지 등 전문화된 지방공기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 2003년도에 자본금 500억원을 전액 출자해 설립되었으며, 주요사업의 범위로는 주택건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도로·도시철도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서, 현재 총 2,083억원의 공사채발행을 승인받아 용역·공표택지지구 주택건설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주택건설을 통한 공익사업의 역량강화와 시의 위수탁 사업인 동백-마성간 도로개설공사, 터미널-용인IC간 도로 확·포장공사, 고매-이동간 도로개설공사 등 총 9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각종 대형사업에도 용인지방공사를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영역의 다각화를 통한 자립경영 외 토대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이익금을 용인시 기반시설에 재투자하여 용인지역 개발의 대표적인 사업주체로 자리매김하는 공기업으로 발전·육성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질문의원 : 김민기 의원

질문요지

분당연장선 조기개통에 따른 추가 공사비 부담금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 요구 하였는데 전역국비 지원방안이나 수혜자인 수원시와의 최소한의 분담을 하는 쪽으로 진행했어야 하는데 용인시가 추가공사비 전액 부담하는 결정을 한점에 대한 명확한 경위와 입장은 무엇인지? 향후 여러요인으로 인한 세입 추계치를 달성하기 어려운 현실속에서 대규모 사업의 재원조달 문제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내용

현재 추진 중인 용인경량전철 건설사업은 분당선 연장 건설사업과 맞물려 있어 개통시기가 늦춰질 경우 막대한 운영

손실과 이용 주민의 불편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한 추가 공사비 310억원의 우리시 관내 네개 전철역사의 공기단축을 위한 사업비로 당초 국비와 시비를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추가 공사비 결정이 지연될 경우 용인경량전철 개통 시기에 맞게 조기개통이 어렵다는 한국도시철도 시설공단의 검토의견에 따라 불가피하게 우리시가 우선 공기단축비용을 부담하면서 용인경량전철 운영 손실을 방지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긴밀한 실무협조를 유지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여건에 따라 예산을 전제하지 않고 사전에 수립되는 계획으로 정부와 경기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우리시의 여건변화에 따라 매년 연동적으로 보완하여 수립하고 있다. 5년 구간의 국·도비와의 재정 연계성을 유지하며 경제 활성화와 지속발전 기반시설 투자를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도로·하수도사업 등 대규모 SOC 사업의 민자유치를 통해 재정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질문의원 : 이상철 의원

질문요지

경제상황이 어려운 현실속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경영개선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자원들을 권역별로 구분 테마 관광산업의 클러스터를 설정하여 접근성, 연계성 등을 개발하고 관광자원의 이미지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를 연계하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은?



답변내용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건설업체 수주율을 높이고 지역 하도급업체 참여율과 지역 장비사용율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은 설계초기부터 설계내역에 포함시켜 지역우수제품 사용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나 관련 법령에 의해 상당부분 제약받고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기 바란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으로 인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보증 추천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대학과 연계한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지원사업과 해외수출상담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문화·관광산업은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할 만큼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시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문화적 관광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어 어느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클러스터 설정을 서북부권, 서남부권, 동남부권, 동북부권으로 구분하여 테마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질문의원 : 이우현 의원

질문요지

용인시의 첫 관문인 신갈지역에 각종 흙물스런 교각들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이러한 문제점해결을 위한 계획이나 대안은? 최근 많은 신규 공직자가 임용되어 현업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경험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미숙한 업무 처리로 시민들의 불만의 소지 요인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용의는 있는가?



답변내용

현재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문제점이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고 부서별로 제각기 다른 디자인을 적용하여 오히려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단순 채색, 벽화 등 일시적인 개선에 급급하지 않고 "보행 환경 개선 기본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안)"을 기초로 "용인시 고가시설물 경관개선(안)"을 마련토록 하겠다. 고가시설물 경관개선(안)은 타 시·군의 유사 사례 및 우수

사례를 벤치 마킹, 별도의 연구 용역이나 공모전 등을 통하여 우리시 실정에 적합한 방안을 발굴토록 하고, 동 개선안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후 결과를 토대로 용인시 전역에 걸쳐 점차적으로 개선하여 더 이상 고가시설물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흙물이 아닌 용인시를 대표하는 조형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지나해부터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2박 3일간 자체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우리시 기본현황, 행동강령, 인사실무, 예절교육, 선배공직자와의 대화, 조직 활성화 등을 실시하였다.

앞으로는 워크숍 기회를 확대하는 등 자체교육기능을 강화하여 일정을 늘려 용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정의로운 공직자상을 정립하는 등 정신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대 시민행정서비스 향상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질문의원 : 이종재 의원

질문요지

타 지역의 레스피아에 비해 용인레스피아는 악취 등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주변생활 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이 승인되어 경안천 목표수질의 방류수질이 강화됨에 따라 용인레스피아 운영 개선이 필요한데 전면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있는가?



답변내용

용인 레스피아는 1992년 준공 이후 그간 단계별 증설로 인하여 부지내 시설물이 산재되고 일부 시설은 노후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방류수질 강화를 위하여는 노후되고 효율이 저하된 기존시설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2008년 7월 30일자로 추정 소요사업비 980억원을 계상하여 민간사업자로부터 민간투자 사업시행에 따른 의향서가 제출되었으며, 주요 개량 및 시설개선 사항으로는 오염총량 관리계획에 따른 방류수질 강화를 위한 공법적용은 물론, 타 처리장내 편익시설 운영실태 조사 및 주민설문 등을 실시하여 처리장 상부에 주민친화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고 악취개선 및 혐오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주민생활공간 확보와 체력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우리시민과 보다 가까이 할 수 있는 친근감 있는 시설설치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2009년 상반기에 설계 완료 및 국고지원 범위를 확정하고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2009년 하반기에는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010년 상반기 착공 및 2011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질문의원 : 김재식 의원

질문요지

향후, 우리 용인시는 2020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인구 120만을 눈앞에 둔 대도시로서, 용인만의 독자적이고 자족가능한 자치단체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답변내용

그동안 우리시는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에 치우쳐 개발되어져 있으나 2020 용인도시기본계획 승인으로 낙후된 동부권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 유통, 관광 등 지역특색에 맞는 생활권을 설정하고,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특히 산업부분에 있어서 이동형 산업단지를 지정하여 동부권의 산업개발 거점을 마련하였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공업용지 추가확보 시 20만평 규모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첨단지식산업 및 IT관련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 집중 육성하여 자급자족이 가능한 첨단산업도시로 성장 발전하고자 현재 서천택지개발지구 내에 IT집적 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개발구상 용역 중에 있으며, 2010년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인 IT집적시설이 건립될 경우 첨단지식산업 및 IT기업의 환경개선과 기업 지원체제 구축, 전략적 클러스터화로 시너지효과 등으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매우 향상될 것으로 확신한다.

오바마 당선자로 돌아본 우리사회에서의 혼혈아에 대한 인식



김희배 부의장

얼마 전 미국대선이 있었다. 후보선정에만도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부었던 영국인이라 대선 역시 치열했을 것이라 예상되었지만 막상 투표를 열어 보았더니 결과는 참혹할 정도의 보수진영의 패배로 막을 내렸다. 마치 우리

나라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당시와 흡사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우리나라도 진보와 보수진영의 대립이 치열했었고 비교적 정치연령(?)이 낮은, 중앙이 아닌 주변의, 장중연설이 아닌 인터넷 동력으로 맞섰던 노무현 대통령의 준비위 측의 모습을 보듯이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당선소식은 과거 우리나라의 한 정국을 보는 듯 했다.

“이민사회를 표방하며 다민족국가를 이루고 살고 있는 역사가 짧지 않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혼혈이나 흑인들이 리더가 되는 것이 무엇이 대수로운 일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흑자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 무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권일수록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흔들릴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타성은 더욱 짙어지는 법이다. 각각의 정체성에 피해를 입고

싶지 않다는 이유가 가장 타당한 근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연유로 오바마의 당선은 미국 내 이민사회나 혼혈 사회에 한 줄기 빛처럼 혹은, 그동안 억눌려왔던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한 것이다.

며칠 전 이렇게 타전되어오는 미국대선의 소식을 듣고 필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정체성의 혼란을 피하기 위한 200년간의 피나는 노력의 일환으로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을 철저하게 사회적 지도자 그룹에서 배제시켜왔던 그들도 한 일을 우리는 왜 못할까? 자문해보기도 했다. 아마도 우리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한국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2세 혼혈아를 국가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지역연고주의라는 비교적 작은(?) 문제도 여태까지 해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한민족국가다. 물론,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는 정치공작의 산물로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서로 하나라는 이데올로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만든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 예로 우리나라에는 손수 토박이 성씨하나다 제대로 찾기 어려운 것이 그 증거다. 아마도 족보운운하면서 각각의 성씨의 할아버지까지 올라가다 보면 자신이 북부지방에서 건너온 성씨라는 것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외세침입

에 의해 몽골족 혹은 중국의 피가 섞여있거나 경제적 혹은 문화적인 이동으로 지역적인 연관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던 우리민족이 고립된 한 피로 존재했을 거라고 추측하는 사학자나 인류학자는 아마도 한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문학자 역시 처용가로 알려진 문학작품을 감상하다가도 ‘우리에게 아랍의 피가 섞이지나 않았을까’라고 자문하기도 한다.

이러저러한 정황을 따지다보면 소위 다민족국가라고 표방하는 것조차 어쩌면 의미가 없는 일일지도 모르겠다. 국가가 보통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것은 ‘원래 그러하다’라는 시대적, 문화적 배경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면 아예 국가라고 하는 개념을 문화교류라는 의미에서 다민족이라는 의미를 통합시키는 것이 나아 보이기도 한다.

만약에 필리핀 2세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면 아니, 혹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미국적인 정치적 이념인 민주주의에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은 이제 세계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도 역시 다원적인 문화에 대한 정신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지금 주위에 있는 혼혈아를 바라보라. 당신은 그들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

지역경제 돌파구 그 해법은 없는가?



오준석 의원

주가 2000포인트 시대! 팽파재를 울려라! 향후 30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는 무난히 넘길 듯!, “선박수주 내후년 오더까지 주문해도!” 등등 따위의 문구는 얼마 전까지 신문지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글귀였다. 당시 세계의 경제에 대해 그 어느

누구도 의구심을 갖거나 신중함을 유지해야한다는 중론을 펼친 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본인의 기억이다.

근래의 경제는 당시의 역동적인 현금의 유동성과 소비 확대 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갑작스레 닥쳐온(?) 서구 모기지론의 붕괴는 전 세계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양산하면서 급속도로 세계경제를 위축시켜왔다. 미국 내 주택담보대출이 아시아의 전역에도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심각하게 끼치는 현세를 볼 때면 아마 아무리 작은 번두리 나라의 경제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는 현대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이 느껴진다. 얼마 전에는 경제상황을 비판한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장들의 잇따른 자살소식이 본인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한다.

세계경제의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할까? 아마 이 질문에 답을 얻기란 쉽지 않을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본인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독립적인 경제주체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름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자.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아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기름을 외국에서 수출해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버스를 한번 타려고 해도 이라크와 미국간에 관계에 대해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 간의 군사지정학적 형세가 우리가 내는 버스요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비단 교통수단 뿐만은 아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우리는 벼라는 곡식을 주된 식(食) 수단으로 삼고 있다. 벼는 재배되는 품종인데 이 재배되는 과정에 비료가 들어간다. 여기 이 비료에도 기름이 들어간다. 그리고 벼를 수거하거나 정제하는 기계도 기름을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인간이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생산되어진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쌀은 기름을 이용한 이동수단으로 각 유통업자에게 운송되어지며, 그렇게 해서 구매되어진 쌀은 각각의 집에 기름을 이용한 전기밥솥으로 조리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기름을 먹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름은 미국과 이라크간의 정세와 밀접

한 관련이 있다. 즉,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지정학적 역학관계에 따라 우리는 밥을 먹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비단 기름뿐만이 아니다. 금융, 문화, 군사, 정치 등등의 모든 관계가 좁은 지역적인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게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본인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까? 본인은 이러한 총체적인 난국을 좁은 범위로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지역만 살고 보자는 지역적인 개념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각각이 가정 마을과, 각 마을이 구 단위 기관들과, 각 구 단위 기관들이 상위 기관인 시 단위 기관들과, 또 시 기관들이 도 기관들과, 각 도 기관들은 국가 기관들과, 각 국가 기관들이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전 세계와 서로 협동하고 하나가 되어 현재의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우리는 각각의 지역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현재의 문제를 우리 지역의 문제라고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얼마 전 우리나라가 미국과 그리고 일본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방식처럼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어 위기의식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일어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국민들은 귀(耳)로 하는 정치를 강구 한다



박남숙 의원

요즘 학원가에 스피치 훈련을 하고 말의 기술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 한다. 언제부터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전국 웅변대회가 생기고 부터 우리 주변에 웅변학원이 성행한 적이 있었는데 말 잘하는 것이 성공

의 지름길이며 유창한 말 솜씨가 선망의 대상이 된 적이 있었다. 만사를 입으로 해치우는 정치판은 물론이고 면접시험을 준비하는 취업생들도 말의 중요성을 절감한다. 그러나 귀의 중요성은 의외로 무시된다. 객관적 정세를 판단할 때 입보다는 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가령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마주 보면서 말을 들지만 말의 진실성에 대한 판단은 귀가 한다. 눈은 차라리 보조적인 역할만 한다. 그렇게 귀가 중요하다.

귀 때문에 흥망성쇠가 갈리고 운명이 갈리는 역사적 사례는 무수히 많다.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는 귀가 유난히 컸다고 한다. 여기에서 귀가 컸다는 말은 단순히 얼굴 생김새만을 말하는게 아니라 귀가 밝았다는 이야기다. 사실 유비의 지도력은 특별한 것이 없다. 귀가 좋았다는 것, 즉 남의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아는 덕성 때문에 장비와 관우 같은 명장을 거느리고 제갈량 같은 불세출의 참모를 곁에 둘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유비가 귀가 여러거나 알았다면 간신들의 이간질이나 아첨 때문에 그런 명장과 참모가 남아 날 수 없었을 것이다. 천하의 제갈량이 끝까지 유비를 보필했던 것도 유비가 말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귀가 좋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덕성이다. 유비가 일세의 영웅호걸의 반열에 이름을 남긴 것은 귀의 덕성 때문이다. 유비는 입으로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귀로 정치를 했다. 그것이 유비의 미덕이다. 반면 귀 때문에 몰락한 임금들도 수 없이 많다. 이를테면 '와신상담'의 주인공인 월나라 왕구천과 오나라 왕부처를 기억할 것이다. 부처는 직언을 서슴치 않으면 중신 오자서를 멀리하고 언제나 자신의 덕을 칭송하는 재상백비의 말을 더 신임했다. 그래서 자만에 빠지면서 구천을 놓아준다. 그것이 결정적인 패착이었다. 결국 오나라는 망하고 자신도 목숨을 잃는다. 부처는 용맹성도 있고 또한 지략도 있었다. 그러나 귀가 여했다. 귀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옛말에 아첨에 대해서는 거들거들 경계하라고 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자기를 칭찬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말만 듣고 비판하거나 불리한 말은 듣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아침에는 귀를 열고 진실에는 귀를 막기 때문이다. 우리의 귀가 그렇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 듣고 싶은 소리, 자기에게 필요한 소리에는 귀를 쫓긋하고 듣기 싫은 소리에는 귀를 닫는다. '양악은 입에 쓰다'고 하지만 진실은 귀에 거슬린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에서 멀어지고 객관적 정세 판단에 실패한다. 객관적 정세 판단에 실패하고서도 성공할 수는 없다.

세상을 경륜할 수 있는 경세력(經世力)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귀에서 나오는 법이다. 말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넘쳐나지만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세상이 혼탁한 것이 아닌가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진 사람의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다. 말만 앞서고 입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인재가 모이지 않는다. 진실을 말해도 그 귀가 거슬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모두가 갈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남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자기의 주장만을 떠벌리며 남의 말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진 세

상에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준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미덕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귀가 이목구비의 균형상 파격적으로 크게 표현한 것도 중생들의 괴로움을 많이 듣고 제도(濟度)와 자비를 베푸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심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신성사상의 주창자였던 노자(老子)도 어깨로 받치고 다녀야 할 만큼 귀가 컸다고 했으며, 이성계 역시 그 귀가 엄청 컸던 걸로 '용비어천가'에 수록되어 있다. 명나라 사신 '왕태'가 이성계의 귀를 가리켜 왕상(王相)이라고 감탄한 걸로 보아서도 그의 귀가 컸음을 알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귀가 크다고 모두가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게 아니다. 이 나라 대통령 중에도 귀가 컸던 분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물태우' 소리를 들었던 노태우씨의 귀가 인터뷰에서 자신의 큰 귀를 들먹이며 "그 큰 귀로 남의 말을 잘 듣고 이를 귓속에 꼭 간직하라"고한 어릴적 어느 스님의 말대로 자신은 남의 말을 곧잘 듣는다고 솔직했던 걸로 기억된다.

그러나 국민들의 소리를 외면하고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착복했다가 결국은 불명예를 안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러므로 단순히 귀만 큰 게 좋은 것이 아니라 들을 귀가 있어야 한다. 진실에 귀가 거슬리지 않는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그 거슬림을 참을 수만 있다면, 최소한 참기위한 노력이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만으로도 삶의 현장을 경영하는 엄청난 동력이 될 것 같다. 귀에 들리는 소리라고 해서 모두를 들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아무리 싫은 소리라도 들어야 할 소리라면 쓴 소리라도 가슴에 새기는 것이 좋다. 유비의 성공비결은 듣는 데 있었다. 유비가 기라성 같은 장수들을 휘하에 둘 수 있었던 것은 웅변이나 전술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귀가 있었던 것이다.

하반기 의원

수상



제6회 의정·행정대상 부문
기초의원 의정대상 수상 (08.10.24)



己丑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밝은 용인의 도약을 꿈꾸며...”

작년 한해 용인시의회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주신 83만 용인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용인시의회 의원 모두는 올 한해도 시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우선으로 노력하겠으며

시민위주의 열린의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